

골프 전야(前夜)의 컨디션 컨트롤



이기윤
(현대위드스트리 대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골프를 하거나 입문한 지 10년 넘어 이골이 나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아마추어에게 ‘골프 전야(前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전날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일의 골프 성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소처럼 차분히 보내고 폭 자기를 원하지만 골프가 하도 가슴을 설레게 해서 잠도 안 오고 뜻대로 컨디션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다.

조금은 답답한 연습장을 떠나 확 트인 필드에 간다는 사실에 어릴 때 소풍가기 전날처럼 들뜨는 마음이 좀체 가라앉지 않는다.

하늘이 맑고 깨끗해도 비가 안 올까 창문을 열고 닫고, 내일 새벽에 갈거면 일찍 자라는 아내의 말에 자리에 누워보지만... 흥분과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경건(?)해져 다시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하늘을 확인한다.

옛일을 떠올리기도 하고 한동안 격조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도 한다. 클럽을 꺼내 닦기도 하고 골프가방을 꺼내 옷이나 양말을 이렇게 넣어봤다 저렇게 다시 넣고, 골프화 끈을 풀렀다 매기도 하며 마음을 달래보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홀인원이나 이글의 행운이 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

‘골프의 세계’라고 부르는 그 우둔하고 거세게 휘몰아치는 해원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비결이 필요하다. 이것을 모르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잠시의 만족이나 공허속에서 맴도는 보잘 것 없는 골프에 그치고 만다. 아아, 골프 전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면 더욱 비틀거리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하나 같이 폭풍전의 징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가 ‘싱글’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 너머로 환희와 아름다움이 보인다. 그렇다면 그 물결치는 파도에 정(精)을 몰입하고, 그 열자(列子)와 같이 열풍을 타보는 것은 어떨까.

골프 전날의 기본적인 체크는 골프클럽을 확인하고, 내일의 일기예보를 참고해서 옷과 구두가 들어가는 가방을 챙겨두는 일이다. 세부적으로는 볼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가방에 명찰은 달렸는지, 티는 넉넉한지, 볼 마커나 그린보수기도 있는지, 장갑은? 골프화? 바람이 분다면 바람막이 옷을, 비 올 확률이 높다면 비옷이나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

골프양말 또한 필수이고 모자, 썬 크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골프장이 처음 가는 곳이라면 위치며 가는 길, 티업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하려면 몇 시에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소요시간도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 한다. 현찰이 넉넉한가도 확인하고(ㅋㅋ)...

그리고 일어나야 할 시간에 알람시계를 맞춰놓으면 모든 ‘여행은 준비할 때가 제일 즐겁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골프도 준비할 때가 즐겁다. 콧노래를 부르며 골프가방에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내일은 이런 골프를 치자’며 설레임까지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행복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보다는 모처럼 골프 가려고 하면 왜 그렇게 결박적거리는 게 많은지 힘들어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생전 소식 없던 놈이 술 먹자고 하지 않나, 내일까지 급히 써 달라는 신문사 원고 청탁이 들어 오질 않나, 그렇게 함께 있자고 해도 요리조리 빼던 내연의 연인까지 하필 그날 같이 있고 싶다고 연락이 온다. 내일 골프를 위해 오늘로 당겨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는 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지...

그래서 ‘노련한 캐디’ 이야기가 생겨난 건지 모른다. 캐디 경력이 쌓이면 골프 치는 것으로 전 날 밤 행적을 마치 함께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환히 안다는 것이다.

“몽둥이(드라이버) 내지르는 게 짧은 걸 보니 늦게까지 꽤나 퍼 드셨군.” “다리가 후들거려 짧은 퍼팅도 놓치는 것을 보니, 어젯밤에 신나게 ‘생물 퍼팅’을 하고 오셨네.” “공을 띄우지 못하는 걸 보니 잠을 꽤나 설치셨군.” 하는 식이다. 비록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아도 다 보인다고 한다. 자기도 모르는 새 망신당하기 싫은 골퍼라면 전 날 밤 최소한의 자기 관리를 해야만 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다. 골프에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 된다’는 머피의 법칙이 작용한다. 왜냐하면 당면한 어떤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집중팔구 걱정이 되면서 또 다른 걱정을 낳기 마련이다. 그래서 머피의 법칙은 나쁜 일은 겹쳐서 일어난다는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도 인용된다.

이보다는 “잘 될 것 같은 일은 항상 잘 된다”는 샬리의 법칙이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시간이 늦어 잔뜩 기가 죽어 클럽하우스에 들어서는데 골프장 사정으로 아직 티업을 안 했다’는 식이다.

‘샬리’는 영화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에서 맥 타이언이 맡은 역으로 알려져 넘어져도 결국은 해피엔딩을 이끌어 내는 모습에서 얻어진 교훈 같은 법칙이다.

반칙의 법칙도 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속담을 뒤집으면 된다.

‘버디가 보기’되는 식으로 골프는 욕심을 부리는 것만큼 잃기가 십상이다. 보기를 하고 나서야 ‘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애당초 한 번에 넣으려는 꿈을 버리는 자세는 어떨까.

프로 선수들의 대회 전야 풍경도 백인백색이다. 어떤 선수는 대회 전 날 퍼터를 가슴에 안고 잔다. 또 어떤 선수는 가볍게 공을 두어 박스 치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든다.

필드의 악동 존 달리는 술집에서 밤새 퍼마시다 골프장으로 직접 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골프 전야가 곧 반칙의 법칙이다. 골프와 전혀 관계없는 전자오락을 하거나 가벼운 잡지를 읽으며 편안히 밤을 보낸다고 하기 때문이다.

